

‘선두’ 삼성, 더 진화된 AI vs 애플, ‘적과의 동침’도 불사

생성형 AI 대격돌

애플 AI시스템 ‘인텔리전스’에
메타 생성형 AI 통합방안 논의

삼성전자 다음달 파리스 ‘언팩’
신형 디바이스에 ‘갤럭시 AI’ 공개
빅스비에 생성형 AI 통합방안 검토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할 핵심 인공지능(AI)을 두고 치열한 전쟁에 돌입했다. 스마트폰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적대관계에 있던 메타 등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들과 동맹을 시도하며 시장을 탈환하려는 반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한 삼성도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갤럭시 언팩에서 개선된 AI 스마트폰을 공개해 견제구를 던질 전망이다.

◆애플 자체 운영 체제에 ‘챗GPT’ 탑재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자사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메타 뿐 아니라 구글, 엔스픽, 퍼플렉시티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AI모델의 사용이 금지된 중국에서는 중국 AI기업과의 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0일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 운영



지난 1월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소개하는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삼성전자

체제(OS)에 심어지는 첫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사 음성 비서 ‘시리’에 오픈AI의 챗GPT 탑재를 발표하며 향후 제휴 업체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애플의 자체 AI가 기존과 차별점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삼성전지도 애플의 시도에 “새롭거나 획기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응수했다.

◆애플 적대관계인 ‘메타’와 동침

이에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자사 하드웨어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WSJ은 “애플과 메타의 논의는 AI 시대에 주요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외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애플이 메타와 개인정보 보호를 두고 대립을 이어온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OS)인 iOS 14.5를 출시하며 ‘앱에 활동 추적 금지’ 선택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아이폰의 기능이 타겟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메타에 큰 손실을 안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대관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애플은 AI스마트폰으로 시장에서 밀리자 메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4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특히 메타 등 AI 회사들도 애플과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 AI 모델이 애플의 기계에 탑재된다면 유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



지난 10일 열린 애플 세계개발자컨퍼런스(WWDC)에서 발표 중인 팀 쿡 CEO의 모습. /뉴스시스

일각에서는 후발주자인 애플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AI 유통망을 뒤흔들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WSJ은 “메타와의 논의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 메타와 협력 도모 속 개선된 갤럭시 AI 공개

삼성전지도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프랑스 파에서 열릴 언팩 행사에서 개선된 신형 디바이스와 ‘갤럭시 AI’를 공개하며 애플의 반격에 견제구를 던질 전망이다. 또 삼성은 음성 비서 ‘빅스비’에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빅스비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

X) 부사장은 지난 4월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빅스비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앞으로 더욱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미국 출장에서 AI 관련 글로벌 CEO들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까지 이어진 2주간의 미국 출장에서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미국 서부 팔로 알토에 위치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자택으로 초청받아 단독 미팅을 갖고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2월 저커버그 CEO 방한 시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회동한 지 4개월 만으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메타도 AI 분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등 보고해야”

금융위, 27일부터 감독규정 시행
내부통제 체계 등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

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가 신고사항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주주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해 대주주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확인 입증금 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절차·방법 등은 업무 지침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전자, 특히 231건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8월6일까지 신청기업 접수
착용형 로봇, 디스플레이 장치 등 포함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들에 활용 가치가 높은 특허 23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들 중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될 경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1700여 개 중소기업에 3400여 건의 기술을 나눠준 바 있다. 2015년부터 기술 나눔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 왔다.

앞선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 내 반사광 제거 기술을 이전 받은 ㈜키워드랩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 렌즈 모듈 신제품을 개발했다. 해외 수출 등을 통해 2023년도 5억1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8명 신규고용도 창출한 기업으로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화성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위반조사 착수

고용부, 감독관들 현장 출동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서 불

이 나 1명이 사망하고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직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울 주택가격, 2월부터 상승… 평균 8.2억

▶▶ 1년 ‘금리 내리고 규제 코앞…’서 계속

스트레스 DSR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한도가 늘어난다. 금리부담이 줄고 한도가 늘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주택평균매매가격은 5월 기준

8억2279만원으로 2월(8억1849만원)부터 꾸준히 올랐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어 가계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